

# 지도자 및 교원\_수기-1

##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사례명

애들아 같이 (운동, 명상) 하자!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학년

-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학교부적응(학습능력 부족 및 가정 불화/정서행동 문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24. 04. 8.~’24. 10. 16. (10개월 1주)(준비기간 포함)

### 1. 프로그램 운영 배경

본교는 지역 명문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다. 지난 3년간 본교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연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10명 내외로, 전국 평균(2022년 기준 1.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2021년 0.8%, 2022년 1.2%, 2023년 1.7%).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학교는 비교적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어느 학교나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은 있다. 학급수가 36개로, 전체 학생수가 9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 많은 우리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

학업중단은 때로 갑자기 이루어진다. 말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사실 갑작사가 아니라, 서서히 학교안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어간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적응 학생을 발견하여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개입이 필요하다.

### 2. 프로그램 운영 사례

□ 프로그램 명: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사제동행 멘토링 (애들아, 같이하자!)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학업중단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적응도 향상
- 참여학생 수: 13명
- 운영 기간: 2024. 4. 8 ~ 10월 현재.
-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 전문상담교사 및 멘토교사 7명(1학기 활동 1명 포함)

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준비

구 분	내 용
학생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예방 스크리닝 검사(전교생) 실시 (24. 4. 8.)</li> <li>- 고위기 학생 선별</li> <li>- 담임교사에게 위기학생 안내 및 멘토링 권유 요청</li> <li>- 개인면담을 통해 학생의 욕구 파악(참여 종목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실시(학생기초육구조사, 대인관계문제 척도지)</li> <li>- 멘토 및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최종 멘티 선정</li> <li>- 학부모 동의서 수합</li> </ul>
--	---

- 프로그램 진행 및 마무리

구 분	내 용
<b>사제동행 멘토링 실시</b>  <b>외부체험 및 사후 검사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 발대식을 통해, 멘토, 멘티가 인사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함으로써 친밀감 형성. 향후 활동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실시.</li> <li>- 매주 요일을 정하여, 점심시간에 우선급식을 실시한 후, 30분간 해당 활동 실시</li> <li>- 명상은 화요일, 운동(배드민턴, 탁구, 헬스)은 금요일에 실시</li> <li>- 해당 종목(탁구,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멘토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 동작을 알려주며,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함.</li> <li>- 해당 종목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멘토선생님과 경기를 통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도함. ,</li> <li>- 명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수준으로 지도하여, 명상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일상에서 자기조절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li> <li>- 1학기 활동 후, 멘토, 멘티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 및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장소로 체험학습을 실시함(스포츠테마파크 ‘스몹’)</li> <li>-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4주)을 실시 예정(10월~11월 실시)</li> <li>- 멘토 멘티가 함께 하는 외부체험학습(지역 명소-테미오레 방문 및 가을소풍) 실시 예정</li> <li>- 사후 검사 실시 (11월 활동 종료 후 실시 예정)</li> </ul>

### 3. 프로그램 운영 시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단기로 종료되는 활동보다는 학교에 있는 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학습을 매우 중요시하는 우리 학교의 특성 상, 주기적, 장기적으로 학업중단예방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바로 점심시간.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남는다.

남자고등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은 짬이 나면 대부분 신체활동으로 휴식을 취한다. 비만 오지 않으면(때로 비가 좀 와도?) 운동장에서 야구, 축구, 농구를 하고, 체육 수업시간에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게 체육선생님의 증언이다. 정적인 활동(집단상담 또는 공예 등)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우리 학교는 학생수가 많은 편이다. 한 학급당 평균 25명이 넘고 36학급이나 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쉽지만,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교에서 여러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은 선생님과 긍정적인 교류를 나눌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신다. 바로 좋은 ‘어른’ 모델이다. 요즘처럼

핵가족 체계에서 형제 자매 없이 자라는 학생들은 친구나 부모 외에 좋은 어른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좋은 어른은 주변에 많을수록 좋다. 2021년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집’에서 이런 설명이 있었다. 작은 성취감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좋은 어른의 모델을 만나는 것(중략)으로도 대안교실(대안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이러한 우리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성이 높고, 지속 가능하며, 주변의 자원(선생님)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사제동행 멘토링 -애들아 같이(운동, 명상)하자’ 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멘토 선생님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우리 학교에는 에너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운동을 즐기시는 선생님들이 존재했다. 선생님들께 한분 한분 다가가 “탁구 좋아하신다면서요?” “배드민턴 잘 치신다면서요?” 라며 운동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번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요.... ” 대부분 취지에 공감해주시며, 주 1회 점심시간을 할애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학기 초 4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면서 함께 학업중단예방 스크리닝검사를 실시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되거나, 학업중단예방 스크리닝 검사에서 2가지 영역 이상 고위기로 선별된 학생들의 명단을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멘티 추천을 받았다. 추천 받은 학생을 하나하나 상담하고 멘토링 활동을 안내했다.

드디어 활동 종목이 정해지고(탁구, 배드민턴, 헬스 그리고 명상) 멘토 선생님과 멘티 학생을 1:2, 1:3으로 연결하였다.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으로 활동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발대식을 하면서, 멘토-멘티가 함께 팀을 이뤄 작은 운동회를 하고, 서로에 대한 퀴즈도 맞추면서 대면식을 했다.

활동이 시작되고, 멘토, 멘티가 운동 및 명상을 공통 관심사로 하여, 함께 주기적으로(주 1회) 점심 시간을 보낸다. 점심시간을 혼자 보내던 학생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탁구를 배우거나, 배드민턴을 치고,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뛸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루하기만 했던 학생은 12시에 우선 급식을 하여 배고픔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강당에 오면 준비된 에너지음료를 마시면서, 상담선생님과 수다를 떨기도 한다. 예민한 성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은, 명상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며, 요가 매트에 앉아 평온한 시간을 경험해본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아로마오일 향을 맡으며 타인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한다. 멘토 선생님도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생을 더 잘 알게 되고,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해주신다. 학생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면, 학생의 학교 부적응이 조금 더 이해되고, 소극적인 줄로만 알았던 학생이 운동을 열심히 배우면 열정적으로 칭찬을 해주신다.

그렇게 학교라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공간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할 일’이 생겼다.

2학기에든 점심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멘토 선생님과 활동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아이들에게 ‘오늘 멘토링 있다~’ 라며 알람역할을 담당하시는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아이들과 행복하고 의미있는 점심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각각 사연이 많다. 또래에 비해 집중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해보이며, 가정 사정상 외부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의 적응을 위해 상황과악을 위한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구청 및 외부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효능감을 느끼고 또래 및 멘토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권했다. 멘토 선생님과 처음 만난 발대식에서도 밝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고, 게임에 이기면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2학기가 중반쯤 지난 지금도, 학생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환경지킴이, 교실 내 자원 봉사) 학습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학생정서행동검사에서 심각한 고위험군(자살)이었던 1학년 학생은, 학기초부터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모든 교과 선생님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관심군에 대한 개인상담시에도, ‘상담이나 개입은 필요없다’며 완강히 모든 도움을 거절하였으나, 다정다감한 모교교과선생님께 자신의 학교부적응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멘토-멘티로 결연하여,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학생은 거의 모든 학교 활동에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이었으나, 이 특별한 멘토선생님과의 활동시에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선생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나마’ 하고 싶은 운동으로 꼽은 배드민턴을 멘토선생님과 즐기면서, 잠깐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후 상담교사에게도 조금은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때, 적대적인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기 초 학업중단위기로 선별되었던 학생들이 점차 학교에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고,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반복되는 긍정 경험이, 그리고 학생을 지켜봐 주는 멘토의 따듯한 시선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11월 말 활동을 마치면 사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정도를 확인하고, 내년 내후년 멘토링 활동 시 참고하여, 우리 학교의 특별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